

출범 3개월 차, 주인의식에 입각한 단단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당부

- 기획예산처 제3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-

- ① 임기근 직무대행 차관, 출범 3개월을 맞아 정책 단계마다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 투철한 주인의식과 단단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 당부
- ②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철저한 대비 +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응, 각별한 경계심으로 상황 모니터링 및 철저한 민생예산 집행점검 지시
- ③ 발표된 정책 과제는 현장과 소통하며 진행상황 점검 + 진행 중인 과제는 실제 효과와 구체적 절차, 부작용 방지 대책까지 고려한 ‘치밀한 설계’ 강조
- ④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항목별로 체계화, ‘행간의 의미’까지 정책에 세밀하게 녹여낼 것 + AI 기반 업무혁신에도 박차 가할 것 주문

기획예산처는 '26.3.3.(화) 11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'제3차 확대간부회의'를 개최하여 기획처 출범 이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,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.

* (일시·장소) '26.3.3.(화) 11:00, 기획예산처 임시청사 대회의실-재정정보원 회의실 영상연결 (참석자) 차관, 1급, 국장 및 심의관, 실국별 총괄과장 등

임기근 직무대행은 출범 3개월을 맞아, “조직의 저력을 실질적 성과로 입증할 때”라고 강조하며, “정책의 단계 단계마다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”을 주문했다. 이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본인 업무를 “진짜 내 일”로 여기는 투철한 주인의식과 흔들림 없는 단단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.

특히, 장관후보자 지명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지원단에 청문회 준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,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.

이와 함께,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, “**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향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**하면서 **관계부처와 함께 대응**해 나갈 것”을 당부했다.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“**수출기업 해운·물류, 유류비, 외화 예산, 재외국민보호**” 등 **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기에 지원**할 것도 지시했다.

한편, 임 직무대행은 첫째, 출범 초기 민간투자 활성화, 기금운용 체계화, 통합성과평가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한 직원들의 **헌신과 노고에 감사**의 뜻을 전했다. 이어,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**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**할 것을 지시했다.

둘째, 진행 중인 정책 과제는 실제 효과와 구체적 절차, 부작용 방지 대책까지 고려한 ‘**치밀한 설계**’를 주문했다. 우선 ①**중장기 발전전략**은 국민 의견 수렴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단계부터 **최종 결과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의미 있는 성과물을 도출**할 것을 당부했다. 3월 말 발표 예정인 ②**예산안 편성지침**은 국정과제 뿐 아니라 “저출생, 탄소 중립, AI 대전환, 양극화, 지역소멸” 등 **구조적 위기 대응 아젠다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내용**을 선명히 담아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. 특히, ③**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**은 “**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, 적발 시에는 부정할 이익의 몇 배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는다**”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것을 강조했다.

셋째,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, 시민사회 등 **국민의견 수렴**이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고, “**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목록화해서 그 ‘행간의 의미’까지 정책에 세밀하게 녹여낼 것**”을 강조했다. 마지막으로, **행정 효율을 극대화**하기 위한 **AI 기반 부내 업무 혁신**에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.

임기근 직무대행은 “**출범 초기의 작은 빈틈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**”며, 전 직원이 **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,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**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	책임자	과 장	류승수 (044-214-1410)
	기획재정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이홍섭 (leehs86@korea.kr)